

발간번호

MYF22-18-개

ISSUE BRIEF

이주 배경 924

사각지대에 놓인
이주배경청소년
현황 및 지원 방안

6 호

2022. 11.

*

9세에서 24세의 청소년.

그중에서도 이주배경을 가진

청소년과 관련된 이슈를 모아 발간합니다.

•

6호 기획 의도

유엔에 따르면 2020년 기준으로 강제 혹은 자발적으로 자신이 태어난 나라를 떠나살아가는 국제 이주민의 수는 약 2억 8천만 명에 이른다.^❶ 이런 세계적 이주 흐름 속에서 다양한 이주배경을 지닌 아동·청소년이 한국으로 이주해오고 있다.

‘2021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에 따르면 국내 미등록 이주민, 이른바 불법체류 외국인인은 2021년 기준 388,700명이고, 이 중 19세 이하는 3,704명, 국내에서 출생한 경우 등을 포함한 실제 미등록 이주아동은 2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또한 2021년 기준 누적 난민 인정신청 총 73,383명(인정 1,163명, 인도적류허가 2,412명) 중 18세 미만은 2,939명(인정 402명, 인도적체류허가 497명)이다.

「유엔(UN)아동권리협약」은 “모든 아동은 인종, 언어 등과 관계없이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교육과 의료 등 삶에 필요한 기본적인 권리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한국은 1991년 비준하여 아동·청소년의 교육 보장과 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미등록 이주배경아동·청소년, 난민 배경아동·청소년은 ‘난민’ 혹은 ‘불법체류자’ 등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체류자격의 문제 등으로 인하여 교육, 의료, 생활 등의 지원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정책적 지원의 논의 대상에서 배제되고 있는 상황이다.

2021년 탈북학생 통계(교육부)에 따르면 제3국출생 탈북배경청소년은 1,498명(전체 탈북학생 중 65.5%)으로 2015년부터는 북한 출생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제3국출생 탈북배경청소년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1항에 따른 각종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고, 북한출생 탈북청소년과 달리 교육과 진로의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는 상황이다.

이번 이슈브리프 6호는 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3가지 유형의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하여 연구자와 학계, 전문가의 의견을 집중적으로 다루어 보고, 정책적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목차

여는 글

사각지대에 놓인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의 필요성

김윤영 I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 소장

이슈 발굴

미등록 이주배경아동·청소년의 현황 및 이슈

- 건강권을 중심으로

김미선 I (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 희망의 친구들 상임이사

난민배경아동·청소년의 현황 및 인식

이수정 I 서강대학교 유로메나연구소 책임연구원

제3국 출생 탈북배경청소년의 현황 및 이슈

장인숙 I 남북하나재단 선임연구원

현장 리뷰

누구나 건강할 권리:

미등록 이주배경아동·청소년의 의료지원 사례 및 현황

정애향 I 녹색병원 사회복지팀 사회복지사

난민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난민배경아동·청소년 지원방안

오은정 I 피난처 아동보호팀 간사

제3국 출생 탈북배경청소년의 교육 지원을 위한

현장 교사의 제언

남현욱 I 시흥매화고등학교 교사

^❶이주배경924에 담긴 글의 내용은 필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필자의 소속 기관 혹은 재단의 공식적인 의견을 대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각지대에 놓인 이주배경청소년의 지원 필요성

김윤영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 소장

한국에 거주하는 이주민들의 구성은 점점 다양해지고 있다. 2018년 500여명의 예멘 난민이 한국으로 입국하였고, 2021년에는 아프카니스탄 특별기여자가 다수 입국하여 살아가고 있다. 탈북배경청소년의 경우, 북한출생자가 대부분이었던 예전과 달리 점점 제3국 출생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이렇게 급변하는 국외 정세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인구특성의 집단들이 유입되면서 한국 사회는 이들을 포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하는 절대적 과제를 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이주배경청소년의 주요정책대상은 여전히 국제결혼가정의 자녀 혹은 중도입국청소년에 치우쳐있었다.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은 이렇게 다양해지는 이주배경청소년 집단의 특성을 반영한 정책적 요구가 커져감을 중요하게 인식하여 선제적으로 정책적 대응을 이루고자 사각지대에 있는 이주배경청소년의 3가지 유형, 즉 미등록, 난민, 그리고 제3국 출생 탈북배경청소년 대상에 주목하여 이들의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기회를 갖고자 한다.

제도나 정책에서 배제된 이들의 삶은 위기의 연속이다. 몇 년 전 연구프로젝트 때문에 만난 한 난민 여성은 밤에 고열로 고생하는 아이를 다급하게 등에 업고 종합병원 응급실로 달려갔다고 한다. 그런데 보험 적용이 안되는 처지다 보니 병원비 걱정에 도망치듯 다시 나왔으며, 아이 증세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찾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하고 약국에서 진통제나 해열제를 먹이며 살아가고 있다고 했다. ‘Please’의 영어단어를 반복하며 도와달라는 그녀의 간절한 눈빛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 이 외에도, 교통사고를 당해서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받아야 하는데 오히려 관찮다며 불법체류 신분인 노출될까 도망치듯 사라지는 사람들도 있고, 뒤에서 걸어오는 사람의 구둣발 소리만 들어도 자신에게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따라오는 공무원 직원이 아닐까 두려워하며 긴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2021년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에서는 21년 기준 국내 미등록 이주민의 수를 388,700명, 이 중 19세 이하는 3,704명으로 집계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출생한 경우 등을 포함하면 실제 미등록 이주 아동 및 청소년은 2만 명에 달할 것으로 각종 행정자료나 보고서에서 추산하고 있다. 정확한 통계치도 없을뿐더러 이들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 상황이다. 또 2021년 기준 누적 난민신청자는 총 73,383명으로 이중 18세 미만은 2,939명이다. 이중에서 난민 인정을 받은 자는 1,163명, 18세 미만의 난민신청자는 402명에 불과하여 나머지는 신분이 불안정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다.

2022년 4월 기준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학교에 재학 중인 전체 탈북학생 2,061명 중 69.2%인 1,426명이 제3국 출생 탈북배경청소년이다. 이들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혜택 적용에 배제되는 집단에 속한다. 또한 작년 재단에서 실시한 4,078명의 이주배경청소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제3국 출생 탈북배경청소년 유형은 다른 이주배경청소년 유형에 비해 통합교육의 선호도가 낮고, 한국 거주 의사에 대해서도 ‘모르겠다’라는 응답이 높은 집단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태임을 알 수 있었다.

이들에 대해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간단하고 분명하다. 인간이면 누구나 기본적으로 어떤 환경에서든지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생존, 교육, 건강 등의 기본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으며 더욱이 이들은 성장과 발전의 무궁무진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는 아동 및 청소년들이기 때문이다. 제도와 법체계에서 벗어난 사람들이지만 이들의 잠재성과 가능성을 발굴하여 사회에서 가치있게 빛날 수 있도록, 우리는 이들을 살펴야 하며 지원방안을 심도있게 모색해야 한다.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은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8조에 따른 이주배경청소년(탈북청소년, 다문화청소년, 중도입국청소년 등)을 지원하는 기관입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다문화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이주배경청소년 역량개발, 청소년 다문화감수성 증진, 정책 및 프로그램 개발을 주요 과제로 하고 있습니다. 재단은 2021년 〈이주배경924〉 1호 발간을 시작으로 이주배경청소년 관련 최근 이슈 및 현장 사례 등을 파악하여 지역의 사업 수행을 지원하고 정책 과제를 발굴하여 현안에 능동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
<http://www.rainbowyouth.or.kr/>

1 — 이슈 발굴

미등록 이주배경아동·청소년의 현황 및 이슈 - 건강권을 중심으로
김미선 | (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 희망의 친구들 상임이사

난민배경아동·청소년의 현황 및 인식
이수정 | 서강대학교 유로메나연구소 책임연구원

제3국 출생 탈북배경청소년의 현황 및 이슈
장인숙 | 남북하나재단 선임연구원

미등록 이주배경아동·청소년의 현황 및 이슈 - 건강권을 중심으로

김미선

한국이주민건강협회 희망의친구들 상임이사

1994년 홍콩소재 아시아이주민센터 활동을 시작으로 1999년 외국인노동자의료공제회(현 한국이주민건강협회) 설립부터 지금까지 이주민 인권과 건강권 옹호활동을 하고 있다.

misun@wefriends.org

한국사회와 이주배경아동·청소년

올해 4월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한 내·외국인 인구전망 : 2020~2040년>^❶에 따르면 2020년과 2040년의 인구구성비에서 15~64세 생산연령인구와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내·외국인 모두 감소하고 0~14세 유소년인구 비중은 내국인은 감소하는 반면 외국인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별히 이주배경 인구 중 학령인구(6~21세)는 2020년 30만 명에서 2040년 47만 명으로 향후 20년간 1.6배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보았다. 이번 통계는 현재 한국사회가 직면한 인구절벽 상황에서 연금·복지, 외국인, 다문화 교육·가족 등 정책대상별 인구전망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했다고 밝혔다. 통계에서 보듯이 이제는 이주배경아동·청소년을 배제한 채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논의할 수 없으며 그만큼 포용과 상생이 우리의 핵심과제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여기서는 인권과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미등록 이주배경아동·청소년의 건강 관련 이슈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주아동 무지개축제의 건강검진 부스
모든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돕는 것이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일이다

미등록 이주배경아동·청소년 건강 관련 이슈

- 보험가입 불가와 의료비 부담

아동기는 신체, 지능, 언어, 사회, 정서 등 모든 면에서 급속한 발달을 이루어 일생의 기초가 형성되는 시기이므로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돕는 것은 가정과 사회, 국가의 책무이며 모든 나라들은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라 아동의 생존, 보호, 발달, 참여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미등록 이주배경아동은 태어나면서부터 기본적인 서비스에서 제외되어 있고 특히 건강서비스와 관련해서는 건강보험이 없어 치료비 부담으로 치료를 못받거나 조기 종결하는 일이 나타나고 있다.

“의료보험을 포함한 의료서비스 혜택을 받지 못하여 과중한 진료비를 부담하였음. 한달 소득에 육박하는 병원비의 부담으로 식사를 굶기도 하였음.”

“유아기에 3년여간 계속 병원 진료가 필요하였는데, 건강보험 가입이 되어 있지 않아 1회 진료마다 15만원 내지 20만원의 비용을 지불하여야 했음”

“사고로 인해 11바늘을 꿰매는 수술을 받아야 했는데, 응급실에서의 진료 비용만 약 70만원이 청구됨. 진료비가 부담되어 병원에 가지 못하고 약국에서 약을 먹는 경우가 빈번함”

“3살 때 폐렴에 걸려 병원에서 1주일 정도 진료받았으며, 이때 진료비로 160만 원을 지불했음. 유아기에 고열로 병원에 자주 방문하였는데, 진료비 부담이 과중하여 상당한 곤란을 겪었음”

위 사례들은 한국에서 태어나거나 부모와 함께 입국하여 장기간 체류하며 성장하고 있는 이주배경아동·청소년들이 겪은 의료사례들^❷ 중 일부이다. 이들은 미등록이라는 이유로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없어 값비싼 의료비를 부담해야 한다. 특별히 미등록 이주아동의 의료문제 가운데 고액의 치료비가 드는 조산아 출생과 신생아 중증질환에 최근에는

국제수가까지 더하여 건강보험 수가의 3~4배, 많게는 5배에 달하는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실제 신생아 선천성 심장질환으로 대학병원에서 수술받은 아기의 수술비로 1억 6천여만 원이 나온 사례도 있었다. 이렇듯 높은 의료비 부담은 치료를 포기하거나 조기 종결하고 한편으로는 강제퇴거의 두려움으로 적극적인 의료개입을 꺼리게 만든다. 의료비 부담은 <2021년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지난 1년간 경제적 어려움 경험 여부 및 유형”을 묻는 질문에 “병원비가 부담되어 치료를 받지 못함”이라고 응답한 외국인이 37.8%, 귀화허가자는 32.4%였다. 결국 경제적 어려움 중에서도 병원비 부담은 이주배경아동·청소년의 건강서비스 접근과 이용에 가장 큰 장애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현행 건강보험제도상 미등록 이주아동은 체류자격으로 인해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없으므로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 제5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개정을 통해 미등록 이주아동도 체류자격에 관계없이 건강보험 가입을 통한 건강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❸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주배경 아동 의료비 지원
미등록 이주아동 신생아 중증질환은 치료비 부담을 가중시킨다

❶ 통계청 보도자료. 2022. 4. 14

❷ 이주배경아동청소년 기본권향상을 위한 네트워크,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경기도이주아동보육네트워크.

<미등록이주아동·청소년 기본권보장 촉구 기자회견>. 2020.10.28

❸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모든 이주아동이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 2018. 12

미등록 이주배경아동·청소년 건강 관련 이슈 - 코로나19와 공공의료서비스 접근 한계

코로나19 이전 미등록 이주배경아동들은 보건소에서 임시관리번호를 부여받고 17종의 필수예방접종을 무료로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보건소가 코로나 대응 의료체계로 전환하면서 일상적인 기초건강 관리 및 예방접종 사업을 중단함에 따라 미등록 이주아동의 예방접종은 모두 이주민 본인이 부담해야 했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지난해 11월 기준 어린이 대상 예방접종은 전국 258개 보건소 가운데 149개만 가능했고 지역별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았던 수도권의 예방접종 업무 중단이 심각했는데 서울과 인천의 보건소는 단 한 곳도 예방접종 업무를 진행하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2019년에는 서울에서 미등록 이주배경아동 3,652명에 대한 무료 예방접종이 실시됐으나 2020년에는 1,020명, 2021년(6월 기준)에는 275명만 백신을 맞은 것으로 나타났다.”^④

이러한 문제에 대해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한 것을 계기로 질병관리청은 ‘외국인 임시관리번호발급자 위탁의료기관 접종지원 확대’를 실시하여 미등록 이주민이 거주 지역의 보건소에서 외국인 임시관리번호를 발급받아 보건소 외의 위탁의료기관에서도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모든 아동에 대한 필수예방접종 사업은 원래의 취지에 맞게 미등록 이주아동에 대한 예방접종 기관을 보건소 외의 의료기관까지 확대하는 것이 맞으며 이번 조치가 코로나 상황의 한시적 조치가 아닌 지속적인 사업 지침이 될 필요가 있다.

미등록 이주배경아동·청소년 건강 관련 이슈 - 심리정서문제

이주배경아동·청소년은 일상생활에서의 차별경험, 학교에서의 따돌림과 폭력 피해 경험 등이 높고, 우울 경험도 높아 심리적 측면과 사회성 발달에 더 어려움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⑤ 이러한 아동의 심리적 문제는 조기발견과 개입, 적절한 상담과 치료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며 <2019년 경기도 미등록 이주아동 건강권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에서 “자녀의 심리상담, 심리치료 필요여부”에 대해서는 22.6%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희망의친구들은 2011년부터 이주아동 심리치료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이주아동 사례를 발굴하여 종합심리검사, 개별상담치료, 사례관리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 3년간은 코로나19로 인한 부모의 실직, 소득감소로 인한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 보육·교육·지역사회 돌봄 부재 등으로 이주배경 아동·청소년들의 성장발달도 크게 영향받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주배경 아동과 가족을 위한 희망가족캠프
이주배경 아동의 건강은 우리 모두의 건강과 직결되어 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도 지속적인 심리치료 지원을 통해 언어, 문화, 부모 및 또래관계 어려움 등 심리정서적 어려움과 발달지연을 겪고 있는 아동들의 성장발달 촉진과 마음건강을 지킬 수 있었고 부모, 사례관리자를 비롯하여 치료기관, 지역사회에 이주아동 정신건강 증진과 예방의 중요성을 환기할 수 있었다.

“모든 이주아동은 체류자격과 무관하게 국민과 동일한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여기에는 예방이나 치료, 정신적·신체적 및 심리사회적 치료, 지역사회 또는 의료기관에서 제공되는 모든 의료서비스가 포함된다. 국가는 차별의 결과로 아동의 건강이 손상되지 않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⑥는 아동인권에 관한 유엔 이주노동자 권리위원회와 아동권리위원회의 공동논평을 잘 새겨야 할 것이다.

④ 한겨레신문. 2022. 1. 20 “코로나19로 끊긴 ‘미등록 이주민 아동’ 필수 예방접종 재개”

⑤ 양계민 외, 2014. <다문화 청소년 중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 II : 총괄보고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⑥ 국제이주 맥락에 있는 아동 인권에 관한 유엔 이주노동자 권리위원회, 아동권리위원회 공동 일반논평 (2017)

난민배경아동·청소년의 현황 및 인식

이수정

서강대학교 유로메나연구소

중동아프리카학 이슬람전공으로 박사학위를

획득한 후, 이주 무슬림을 연구하는 연구자이다.

주요 저서로는 [타인을 기록하는 마음]이 있다.

sooislam86@gmail.com

한국 사회 속 난민배경아동과 청소년, 우리는 그들을 알고 있는가?

2018년 10월 우리 사회에 난민과 관련하여 작은 이슈가 있었다. 이란 출신 부자(父子)가 그 주인공이었다. 아버지와 함께 한국에 입국하고 기독교로 개종한 ○○군은 개종이 금지되어 있는 이란으로 돌아갈 경우 목숨을 위협받을 가능성이 있었기에, 난민을 신청하였다. 2018년 당시 ○○군은 난민으로 인정받았으나, 그 아버지는 인정받지 못하였고, 현재까지도 아버지의 거취는 완전히 결정되지 않은 상태이다.

당시 ○○군이 다니던 학교의 학생들은 ○○군의 난민 인정을 축하하며 성명서를 발표했는데, 해당 성명서의 제목이 울림을 남겼다. 제목은 “이름은 잊혀지고 사건은 기억되어야 합니다.”였다. 학생들은 성명서에서 친구가 받은 상처를 치유하고 일상으로 돌아가 편안한 삶을 누리기를 소망한다고 밝히며 어른들의 세상에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거리를 던져주었다.

2021년 기준 난민 신청자는 2,341건으로 전년도 대비 64.9% 감소한 수치이다. 코로나 상황으로 인하여 국제 사회 속 사람들 간 이동이 지극히 제한된 결과라 볼 수 있다.

그동안 누적 난민 인정자 수는 1,163명이고, 2021년 신규 난민 수는 72명이다. 국적별로 보면 이집트, 에티오피아, 앙골라,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순이다. 현재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난민 관련 통계 정보는 연도별 유입된 난민 수, 성별, 국적만 공개되고 있을 뿐 난민의 연령대는 공식적으로 공개되고 있지 않다. 다만 추정하건대, 가족 단위 난민 이주자가 존재하고, 이런 경우 다수는 아이들과 함께 한국 사회로 유입되었을 것이다.

그럼 우리 사회는 얼마나 난민 학생들의 삶을 알고, 이해하고 있는 것일까? 이들이 한국 사회에서 경험하는 것은 무엇이며, 어떤 어려움이 있는가? 그리고 우리 사회는 이들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인가?

2021년,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 가족 자녀, 한국 사회에 들어서다.

2021년 8월 한국 사회가 다시 한 번 소란스러워졌다. 우리와 큰 관계가 없는 것처럼 여겨진 낯선 나라 아프가니스탄에서 수 백명에 달하는 이주민이 유입된 것이다. 2001년부터 아프가니스탄에 주둔한 미국이 철수를 결정하면서 이슬람 근본주의 단체인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 전역을 장악하였고, 우리나라를 도왔던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의 목숨이 위험에 처하자 한국으로 급하게 이송하게 되었다. 다른 나라 역시 같은 상황에 놓이게 되었고, 일반적으로 이들을 난민이라 칭한다.

우리 정부는 이들을 난민이라 칭하는 대신에 특별기여자라는 명칭을 새롭게 부여하였고, 비자 역시 장기 거주 비자를 제공하였다. 한국 사회에서 공식적으로 부여한 명칭은 달랐지만, 아무런 준비없이 본국에서 발생한 국가적 사태로 인하여 강제로 사는 곳을 떠나야 했다는 점에서 넓은 의미로 살펴보면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의 삶은 난민의 삶과 같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 대다수가 가족 단위 이주였다는 것이다. 전체 이주민의 40%에 달하는 157명이 울산 지역에 정착하게 되었는데 이중 85명이 어린이집부터 고등학교까지 재학하는 학생들이었다. 또한 한국에 입국한 후 태어난 아이들과 앞으로 태어날 아이들까지 생각하면 아이들의 비중은 점점 더 높아질 것이다. 아이들은 부모들과 함께 한국 사회 적응을 위한 짧은 교육을 받고 2022년 3월 새학기가 시작되자, 삼삼오오 각 학교로 배정되어 교육을 받기 시작하였다. 아이들의 등교는 울산 지역 사회에 다양한 갈등을 가져왔다. 이들의 학교 생활 자체를 반대하는 사람들부터, 정착을 돕기 위한 사람들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활동을 하기 시작하였다.

학교 속 이방인, 난민 배경 아동·청소년

학교에 다니기 시작한 특별기여자 아이들은 바로 자신이 속한 학급으로 들어 갈 수 없었다. 가장 큰 걸림돌은 언어 문제였다. 짧은 기간 한국 사회 관련 교육을 받긴 하였으나, 단기간에 수업을 들을 수 있을 만큼 한국어 능력이 향상되는데는 문제가 있었다. 언어적으로 준비되지 않은 아이들이 학교에 다니기 시작하자, 단순히 특별기여자 아이들의 적응뿐만 아니라, 이들을 지도하는 교사들도 한계를 느끼기 시작하였다.

소통의 부재는 서로를 이해하기에 앞서 오해를 불러왔고 여기에 더해지는 문화적 차이는 갈등을 일으키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학년이 높을수록 아프가니스탄 현지와 한국의 학습 수준 차이, 언어적 한계로 인한 어려움이 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 전체가 난민 배경 청소년을 전문적으로 지도한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이들의 진학 상담, 교우 관계, 학습 상담 등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웠다. 시간이 흐르면서 언어 차이에서 생기는 갈등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내고, 아이들의 언어 능력이 향상되기 시작하면서 아이들은 점진적으로 또래 한국 친구들과 함께 수업을 듣고 학교 생활을 하기 시작하였다. 언어적 차이에서 비롯된 갈등과 함께 종교 문화 차이에서 오는 갈등도 많이 발생하였다.

특별기여자 가정의 아이들은 장시간 동안 이주를 결정하고 준비해서 한국 사회로 유입된 아이들이 아니었다. 말 그대로 하루아침에 아프가니스탄이라는 나라에서 언어, 문화, 역사, 종교가 판이하게 다른 대한민국에 정착하게 된 것이었다. 한국 사회가 이슬람, 무슬림에 대한 이해가 깊지 않듯이, 특별기여자 아이들 역시 한국 문화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고, 특히 이슬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한국 문화에 불만을 갖게 되었다.

무슬림은 하루에 다섯 번 예배를 드려야 한다. 무슬림이 다수인 국가에서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행동이지만, 한국 교육현장에서는 지극히 낯선 종교 의례였다. 일부 학생들은 의무로 해야 하는 다섯 번의 예배 중 학교 시간 중 점심 시간에 행해야 하는 예배를 드리고 싶어하는 경우가 있었다. 또한 예배를 드리기 전에 손과 발, 얼굴을 씻는 우두의식을 치러야 하는데, 이를 잘 모르는 교사 입장에서는 학생들이

화장실에서 갑자기 신과 양말을 벗고 발을 씻는 상황 속에서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였다. 자신들의 종교 관습을 지키고 싶어하는 학생들과 이를 수용해야 할지 금지해야 할지 정확한 지침도 없는 우리나라의 교육 현장은 크고 작은 갈등과 당혹감의 연속이었다.

특별기여자 자녀들이 가장 힘들어 한 것은 음식이었다. 학교에서 제공하는 급식을 먹어야 했는데, 이들 음식이 무슬림이 먹을 수 있는 할랄 푸드인지 아닌지가 문제가 되었다. 교사들 입장에서는 소수의 특별기여자 학생을 위하여 할랄 푸드를 따로 만들어 제공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학교에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돼지고기가 포함된 음식을 정확하게 이야기 해주고, 아이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알려주는 것이 최선이었다. 날씨가 선선할 때는 도시락을 싸올 수 있도록 허락하였으나, 날이 더워지면서 식중독의 위험이 커지자 이마저도 힘든 상황이었다. 학교 측에서는 최선을 다해 무슬림이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을 구별하여 주었으나, 아이들은 이를 신뢰하기 어려워 하는 모습을 보였다. 일단 단 한번도 먹어본 적이 없는 음식이었기 때문에 해당 음식의 조리과정에서 무엇이 들어가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먹지 않는 것을 선택하는 모습을 보였다. 교사들 입장에서는 함께 균형잡힌 음식을 먹고 생활해야 하는 아이들이 학교에서 끼니를 거르는 상황이 되니, 지도의 어려움을 느끼는 상황이 반복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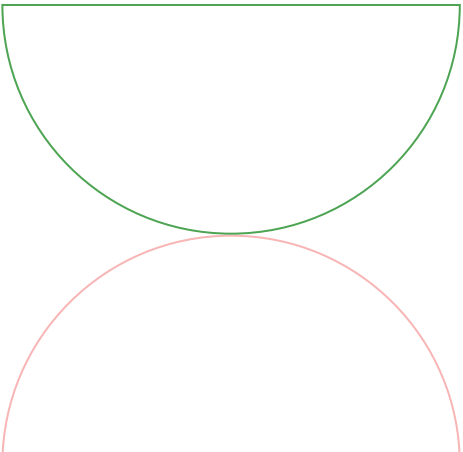
결과적으로 현재 우리 사회가 난민 배경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는 방법과 발생할 수 있는 갈등, 이를 해결하는 방법에 이르기까지 이번에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가 우리 사회에 들어오기 전까지 이에 대한 대비를 하거나 준비를 한 적이 없었다는 것이 문제였다. 다양한 배경을 가진 아이들이 우리 아이들과 함께 생활할 수 있다는 인식을 미처하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실제 난민 배경을 가진 아이들이 학교에 유입되었을 때 미리 계획한 대로 대응을 하기보다는 현실적 문제를 실제로 경험하면서 해결하는 방법밖에 없었다.

인식 부재와 극복 노력

결과적으로 지금까지 우리 사회가 난민 아동을 인식하거나, 이들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진행하거나 뒷받침 한 적이 없었던 것이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다문화 가정 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되었고, 여러 노력의 결과로 다문화 가정, 다문화 아이들에 대한 인식이 많이 높아졌다. 그러나 이런 인식은 결혼 이주 가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우리나라 다문화 인식에 따라 난민 가정 아이들이라는 맹점이 생기게 된 것이었다.

이런 의미에서 울산 특별기여자 자녀 정착 지원 활동은 난민 아이들이 우리 사회로 유입될 수 있고, 이들이 우리와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준 좋은 예시가 되었다.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우리 아이들이 다양한 사회, 문화적 배경을 가진 아이들과 함께 생활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교육자 입장에서는 내가 가르치는 아이들이 지금까지 내가 알지 못하고 관심조차 없었던 문화적 배경을 갖고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또한 행정 관계자들은 우리 사회에 존재할 수 있는 또 다른 보호 대상자를 인식하고 이들을 위한 정책을 고민하는 시점에 설 수 있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그동안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여러 정책을 구성하거나 펼치지 못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난민 배경 아이들이 사회 속에 공존한다는 사실을 인지한 지금 이 시점은 인식에서 한 발 더 나아가 함께 살아갈 방법을 만들기 시작해야 하는 지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적인 것은...

2022년 3월 아이들이 학교에 처음 등교한 이 후 두 번째 학기가 끝나가고 있다. 초반의 여러 갈등을 해결해 나가며 서로 간의 차이를 좁혀나갔고,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 학생들은 한국 학교 생활에 적응하였고, 한국 아이들은 이들을 자신들의 친구로 받아들였다.

어른들의 상상이나 예상과 다르게 아이들은 언제나 강한 모습을 보여줬다. 누구보다 빠르게 한국어가 늘어가는 모습을 보였고, 다른 친구들과 서서히 어우러지는 모습을 보였다. 종교 문화적 차이에서도 여전히 갈등을 보이고 있는 아이들도 분명 있지만, 다수의 아이들은 한국 사회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부분과 자신들의 요구를 내세워야 하는 부분을 구분해 가며 합의점을 찾아가고 있다.

교사들 역시 아이들을 이해하고 더 잘 지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많은 지식을 습득하며 아이들의 학교 생활을 돕고 있다. 우리 사회는 이제 막 난민 배경 아이들을 본격적으로 학교 속에서 만나게 되었다. 앞으로 우리 사회에 이번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 규모의 난민을 다시 받아들이게 될지는 불확실하지만 꾸준히 개인 단위의 난민은 우리 사회로 유입될 것이다. 또한 비단 난민 배경이 아닐지라도 다양한 배경을 가진 아이들이 학교 속에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성장하게 될 것이다.

도움이 되는 링크

국내 난민 통계 자료
https://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820



결과적으로 우리 사회는 이제 다양한 아이들이 우리와 함께 할 것이라는 것을 인지하였다. 또 여러 갈등 사례를 경험하였고, 이를 해결해가는 과정도 경험하고 있다. 이제부터 우리 사회가 풀어나가야 하는 과제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아이들을 우리 사회에 함께 살 수 있도록 돕고, 이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사회 속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지지할 수 있는 방법과 이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기반을 찾아나가는 것이다.

제3국 출생 북한(탈북)배경청소년의 현황 및 이슈

우리 사회에 정착하고 있는 북한배경 가족 인구는 최소 5만명 이상으로 추정

1990년대 중후반 북한의 경제난을 계기로 하여 대규모 탈북 현상이 시작되고 국내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착지원이 본격화된지 20년이 넘게 경과하였다. 1990년대 후반부터 매년 들어오는 인원이 계속 증가하여 2000년대 중반 이후 한 해 2천 명 이상 입국하였다. 최근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국경이 막히고, 특히 중국과 북한의 강력한 접경 봉쇄로 인해 탈북민 입국자 수가 급감하였다. 그러나 우리사회에 정착한 북한이탈주민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3만3천8백57명에 이른다.(통일부 '22.9 기준)

북한 국경을 넘어 입국한 북한이탈주민 수는 약 3만4천여 명에, 이들이 우리 사회에서 결혼 출산 등으로 구성된 북한배경 가족 인구를 고려하면 그 수는 최소 두배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남북하나재단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에 따르면 현재 한국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는 학생자녀가 있다고 응답한 북한이탈주민은 1만 20명이다. 이중 교육부에서 집계한 북한 출생 학령기 학생수 635명을 제외하면 9,385명의 자녀가 통일부의 북한이탈주민 통계에서 빠져있는 북한이탈주민의 학생자녀 수다. 이 숫자는 북한이탈주민의 학생자녀만을 포함하

장인숙

남북하나재단 선임연구원

남북하나재단에서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 및 국가승인통계 총괄] 업무를 담당하며 증거기반 북한이탈주민 정책에 필요한 국가승인통계를 작성, 이화여자대학교 북한학과 겸임교수로 겸직하며 대학생들에게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이해 제고 및 사회통합형 통일인재 양성에 힘쓰고 있다.

cool@nkrf.or.kr

고 있기 때문에 영유아와 학령기 이후 자녀수가 제외 된 수 치다. 이 모두를 고려하면 통일부 통계치에서 누락된 북한배경 자녀수는 만명을 훨씬 초과할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실태조사 결과로 부터 추정할 수 있는 현재 남한에 정착하여 함께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 남편, 중국인 남편(약 8천여 명)을 고려한다면 우리 사회에 함께 살고 있는 북한이탈주민과 그 가족은 최소 5만 명 이상으로 추정된다.

탈북동기 변화와 가족단위의 입국 증가 - 자녀와 가족의 보다 나은 삶의 질 추구

1997년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착지원법」)이 제정되고 국내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본격적인 지원이 시작된 이래 가장 큰 변화는 가족단위의 입국자 증가 및 가족 재결합 사례 증가다. 이러한 변화는 탈북 동기의 변화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남북하나재단의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에서 '탈북동기' 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가족(자녀)의 더 나은 삶을 위해' 탈북했다는 응답자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더 나은 삶의 질을 찾아 가족과 함께 이주하는 형태로 탈북유형이 변화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 제3국 출생 자녀 증가 추세

북한을 떠나 제3국을 거쳐 한국 사회에 정착하는 기나긴 여정은 북한이탈주민의 다양한 가족유형을 형성하였다. 배우자의 국적이 북한, 남한, 중국으로 다양하고, 자녀의 출생지 또한 북한, 중국, 남한으로 다양하다. 삶의 질과 가족을 위한 이주 형태의 탈북유형 증가 추세와 더불어 제3국에서 출산한 자녀와 동반 입국하거나 먼저 입국하여 정착한 후 제3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녀를 초청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제3국 출생 청소년은 탈북과정에서 '북한이 나 남한이 아닌 제3국에서 출생한 북한이탈주민 자녀'를 의미한다.

교육부의 탈북학생 통계에 따르면 제3국 출생이 탈북학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제3국 출생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부터 북한출생자 수를 넘어서기 시작하여 2022년 69.2%를 차지하였다. 탈북학생 3명 중 2명이 제3국 출생이다. 제3국 출생 중 대부분은 중국에서 출생하였다.

[표 1] 거주기간별 탈북동기 변화(상위 5순위, 단위 : %)

거주기간	자유를 찾아서	식량이 부족해서	가족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돈을 더 많이 벌고 싶어서	먼저 탈북한 가족을 찾아서
전체	22.8	21.6	10.7	10.7	10.4
3년 미만	22.6	19.2	14.0	14.9	11.3
10년 이상	20.7	26.0	9.5	9.3	10.5
증감	1.9	Δ6.8	4.5	5.5	0.8

출처 : 2021 북한이탈주민 정착실태조사, 91쪽.

[표 2] 탈북학생 중 제3국 출생이 차지하는 비율(단위 : %)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북한출생	1,226	1,200	1,101	1,008	982	907	789	635
제3국 출생	1,249	1,317	1,437	1,530	1,549	1,530	1,498	1,426
제3국 출생비중	50.5	52.3	56.6	60.3	61.2	62.8	65.5	69.2

제3국 출생 청소년들은 북한출생 청소년이나 중도입국 청소년보다 복합적인 어려움에 직면

탈북여성들은 자녀를 더 나은 환경에서 교육할 수 있다는 희망을 안고 제3국 출생 자녀와 동반 입국하거나 중국에서 초청하여 어렵게 가족재결합을 이루지만 정착과정은 순조롭지 않다. 제3국 출생 자녀는 대다수가 어린 나이에 가족의 분리와 재결합을 경험한다. 부모와 어린 나이에 헤어지면서 발생하는 정서적 불안정성, 그리움과 미움을 겪으며 오랜기간 떨어져 살았기에 재결합 후 겪게되는 부모-자녀 갈등, 언어와 문화의 차이로 인해 힘든 정착 과정, 중국에서 태어나 중국인으로 살다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남한에 입국하여 북한이탈주민 자녀로 한국에서 자라며 겪게되는 정체성의 혼란 등을 겪으며 제3국 출생 자녀들은 북한출생 탈북청소년이나 중도입국청소년이 정착과정에서 겪는 어려움보다 매우 복합적인 문제들에 직면한다. 무엇보다 제3국 출생 자녀의 정착을 도와주며 돌봐야 할 엄마도 자녀들의 복합적인 문제들에 대처하기 힘든 상황이다. 자녀 양육을 지원해 줄 부모와 친인척도 없이 사회적 지지기반도 취약한 상태로 자녀돌봄과 경제활동을 병행하며, 스스로도 낯선 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은 매우 고단한 일이다.

점차 제3국 출생 자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나 법적근거와 지원 미흡

그러나 「정착지원법」은 지원대상을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의가 “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어 제3국 출생 자녀는 원칙적으로 지원 받지 못한다. 다만 현행 「정착지원법」이 제3국 출생 자녀를 보호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탈북유형 및 탈북동기 변화의 특성을 반영하여 2017년 법이 개정되면서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안정적 정착을 목적으로 초기 정착지원이 가능하도록 “제3국 출생 자녀 양육가산금”이 신설되었다. 이를 근거로 제3국 출생 자녀가 있는 가정은 제3국 출생(만16세 미만) 자녀 최대 2명까지 1인 당 450만 원을 지급받는다. 제3국 출생 자녀가 정착금이나 주거지원금의 지원에서 소외되어 발생하는 초기 정착금의 격차를 다소 줄였다.

교육지원 측면에서는 대학진학의 경우 2019년부터 4개 대학(명지대, 백석대, 성공회대, 한동대)이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를 정원내 특례입학 대상자에 포함시켰으며, 2024년부터는 모든 대학으로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남북하나재단의 민간 기부금을 활용하여 첫 학기 등록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재단에서 실시하는 대학생 예비대학, 남북대학생 동아리 활동, 진로진학지도 등 각종 지원에 북한출생 청소년들과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다.

한편 초중고 학생의 경우에도 제3국 출생 청소년들이 북한출생 청소년들과 동일하게 한겨레중고등학교, 여명학교, 하늘꿈학교, 드림학교 등 학력이 인정되는 대안학교에 무료 입학 및 기숙사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제3국 출생 청소년들이 다수 교육 및 생활하는 시설에는 이중 언어 강사를 배치하여 맞춤형 한국어 교재 등을 보급하여 지원한다. 그리고 남북하나재단은 탈북자녀가 다

수 재학하고 있는 26개 초등학교에 북한 교사출신 통일전담교육사를 배치하여 학업지원과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제3국 출생 자녀도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 외에도 남북하나재단에서 지원하는 방과후 공부방, 방문학습지 지원, 화상영어교육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3국 출생 청소년의 진로 및 취업 지원은 여전히 사각지대

북한이탈주민 가족유형의 특성을 고려한 정책 개선을 통해 제3국 출생 청소년에 대한 초기정착지원과 학령기 단계 지원에서 북한출생 청소년들과 지원 격차가 다소 감소하였으나 학교를 졸업한 이후 받는 지원은 여전히 차이가 크다. 북한출생 청소년들은 대학등록금 전액을 지원받고, 원하면 자립준비를 위한 직업교육훈련 교육비 지원과 진로 및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으나 해당 지원에서 제3국 출생 청소년들은 포함되지 않는다. 자립을 위해서는 청소년기에 자신의 적성과 진로 탐색 및 직업교육훈련을 통한 직업역량강화가 필요하지만 제3국 출생 청소년들을 위해 특화된 정부차원의 정책적으로 제도화된 지원이나 프로그램은 미흡하다.

북한출생 청소년의 경우 원할 경우 고용노동부 산하 전국 70개 고용지원센터와 전국 25개 하나센터의 취업전문상담사를 통해 직업상담, 직업역량강화 교육훈련 참여, 취업알선, 동행면접, 취업 후 사후 관리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남북하나재단에서 북한이탈주민을 위해 맞춤형으로 개발한 다양한 직업역량강화 프로그램과 취업연계형 인턴쉽 지원 프로그램, 직업교육훈련 교육비 바우처 지원(최대 100만 원), 전문직 양성과정(교육비 및 교재비 지원 등), 창업지원프로그램(창업 기술 교육, 창업비 지원, 전문가 창업 컨설팅), 청년취업아카데미(이력서 및 자

기소개서 작성 컨설팅, 모의면접, 직업기초 소양 교육)등이 지원된다. 이렇듯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다양한 자립자활을 위한 지원 사업들이 운영되고 있으나 지원대상을 정착지원법에 근거한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제3국 출생 청소년은 참여할 수 없다.

제3국 출생 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진로 및 취업지원 필요

제3국 출생 청소년은 엄마가 북한이탈주민이지만 탈북청소년은 아니다. 중국에서 태어났지만 한국인이다. 한국어 보다는 중국어가 편하고 중국에서 나고 자라 국가정체성이 중국에 더 가깝다. 북한은 기본 적도 없는데 탈북청소년으로 불리면서도 북한출생 탈북청소년이 받는 주요 지원은 받지 못한다.

북한배경 청소년 대안 교육시설에서 만난 한 교사는 제3국 출생 청소년의 경우 대학 입학금을 지원받더라도 생활비와 등록금 마련이 힘들어 취업 후 대학에 진학하는 계획을 세우는 경우가 많은데 고등학교 졸업 후 취업하는 곳이 급여가 높지 않아 학비를 모으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한편 취업으로 진로를 선택한 경우도 우선 진입하기 쉬운 일자리에 취업한 후 더 나은 일자리로 이직하기 위해서는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을 희망하지만 이 또한 직업교육훈련비가 없어 어려움을 겪는다고 한다. 이들을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나 다문화 지원 등에 대해 안내를 해주기도 하지만 몇차례 전화를 걸어보고 지원 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에 신청조차 하지 못하거나, 어렵게 신청을 해도 직업훈련 과정에 따라가지 못해 포기한다고 말한다. 그래서 친구 따라, 아는 사람 따라 중국어로 말이 통하고 마음이 편안한 곳을 찾아 아르바이트로 생활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제3국 출생 청소년들의 자립 준비와 더 나은 일자리 취업에 필요한 자격증 취득과 스펙을 쌓을 수 있는 자립준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귀기울여야 한다. 그들이 사회적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사회적 지지기반을 강화시켜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통합될 수 있도록 그들의 특성을 고려한 특화된 맞춤형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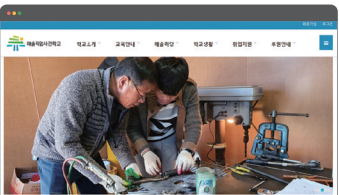
[표 3] 북한이탈주민 자녀 출생지에 따른 초기 정착금 비교(단위 : 만 원)

세대 구성 형태	정착금 기본금	주거지원금	제3국 출생 자녀 양육가산금	합계
북한이탈주민 엄마와 북한출생 자녀	1,400	2,000	-	3,400
북한이탈주민 엄마와 제3국 출생 자녀	800	1,600	450	2,850

출처 : 통일부, 2021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실무편람, 29쪽 참조.

북한이탈주민정책 실태조사 주요 통계를 알아볼 수 있는 곳
북한이탈주민 주요경제활동 지표 및 보건 및 건강, 소득과 소비, 사회적 관계망 등 삶의 질을 파악하고 있다.
🏠 남북하나재단
<https://koreahana.or.kr/home/kor/promotionData/information/researchData/index.do?ptSignature=DN6hgyrK9phVsV7c8ZdFnWgDjyFmwLDs4%2FDy6596eOs%3D&menuPos=120>

해솔직업사관학교
북한배경 청소년들 중 미취학, 미취업으로 사회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을 위해 설립된 직업교육 대안학교로 기술교육과 대학입학을 지원하고 있으며 16~20세의 제3국 출생 청소년도 지원 가능하다.
🏠 <http://www.haesolschool.org/>



북한배경 학생 교육 통계를 알아볼 수 있는 곳
한국교육개발원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
🏠 <https://www.hub4u.or.kr/main.do>

2 — 현장 리뷰

누구나 건강할 권리 : 미등록 이주배경아동·청소년의 의료지원 사례 및 현황
정애향 | 녹색병원 사회복지팀 사회복지사

난민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난민배경아동·청소년의 지원방안
오은정 | 피난처 아동보호팀 간사

제3국 출생 탈북배경청소년의 교육 지원을 위한 현장 교사의 제언
남현옥 | 시흥매화고등학교 교사

누구나 건강할 권리 - 미등록 이주배경아동·청소년의 의료지원 사례 및 현황

우리 누구에게나 건강할 권리가 있다. 건강할 권리란 아픈 곳을 치료하는 것을 넘어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다양한 환경적인 요인까지 포괄한 개념이다. 건강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한 과정에서 병원은 필수적인 기관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누군가에게 병원은 보이지 않는 높은 문턱을 느끼게 하는 곳이기도 하다. 특히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미등록이주아동들과 양육자들에게는 질병에 대한 불안, 경제적 어려움, 신분 노출, 언어, 낮은 의료 체계 등으로 막연한 두려움의 공간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이유로 선천적 질환이나 중증질환이 아닌 일상적 질환에 대해서는 증상의 원인을 찾고 치료하는 근본적인 방법보다 양육자들이 알고 있는 민간요법이나 약국에서 약을 복용하는 것으로 대처하곤 한다. 이미 많은 미등록이주아동들이 국내에서 태어나거나 체류하고 있으나 ‘불법 체류자의 자녀’라는 낙인으로 우리사회는 이들의 건강할 권리를 방치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모든 아동의 어떤 조건과 신분에 상관없이, 즉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이 UN 아동권리협약에 규정된 권리를 보장해야(제2조 제1항)하고, 아동 최상의 이익을 먼저 고려해야(제3조 제1항) 한다는 아동권리협약이 있으나 아동의 기본권인 건강할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정애향

녹색병원 의료사회복지사

필자는 녹색병원 사회복지사로 우리사회의 소외된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공익사업을 담당하고 있으며 금융산업공익재단(2021년)과 서울시교육청(2022년)의 지원과 녹색병원 기금으로 ‘미등록이주아동의료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cogreenhospital@naver.com

위기 상황에 더 위축되는

미등록이주아동의 건강권

그나마 국가가 보장하고 있던 미등록이주아동에 대한 국가예방접종지원사업은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휩쓸기 시작한 때부터 대안 없이 중단되었다. 그중 영유아필수예방접종은 일반 병원에서 많게는 수십만원의 비용을 부담해야 했기에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성장에 맞는 접종시기가 있음에도 의료비 부담으로 접종을 하지 못하고 지연되는 경우도 많았다. 다행히 인도주의 실천의사협의회에서 관계기관에 이의를 제기하는 과정을 통해 2022년 1월부터는 보건소에서 관리번호를 발급받은 경우에 한해 인근 소아과에서 무료접종이 가능해졌다. 그럼에도 일부 보건소나 병원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안내가 부족하여 아동과 양육자들이 혼란스러워 하는 경우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건강 사각지대에서 놓인

미등록이주아동들

사례1 사고를 당하는 상황에서도 아동은 건강할 권리보다 가족들의 의료비 부담을 먼저 걱정하게 된다. 버스를 타고 이동하던 중 교통사고가 나면서 의자 손잡이에 머리를 부딪힌 A양은 몸살기운과 두통이 있었다. 처음에는 감기인 줄 알고 감기약을 복용했으나 두통은 심해졌고 사고 때문일 것이라는 불안감이 커져갔지만 의료비에 대한 걱정으로 본인의 증상과 불안감에 대해 쉽게 이야기하지 못했던 것 같다. 증상이 지속되자 부모님께도 이야기하였으나 외상이 없던 A양은 어느 병원을 방문해야 할지도 막막했다고 한다. 사고 전 녹색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던 경험이 있었던 아동은 사회복지팀에 전화해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다. 바로 내원하도록 하여 신경외과 진료와 검사를 진행하였고 검사결과 다행히 사고로 인한 머리의 손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아마 당시 많이 놀라서 그런 것 같다는 주치의의 다독임을 듣고 모든 가족들은 안심할 수 있었다. 국내 아동들이었다면 부모님들은 버스 회사에 당장 항의하며 사고에 따른 보상과 책임 등 피해자로서 권리를 요구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생활속 사고의 상황에도 미등록이주민은 추방에 대한 염려로 건강할 권리를 주장할 수도, 보장받지도 못하는 것이다.

사례2 지역아동센터에 다니고 있는 B군은 친구들과 장난치다가 손가락이 골절되는 사고를 당하게 되었다. 지역아동센터 내에 보험이 가입되어 있어 아동의 의료비를 처리하려고 하였으나 주민등록번호 혹은 외국인번호가 없기에 보험처리가 안 된다는 답변을 들었다. 당황한 기관 사회복지사가 본 병원에 의료지원을 의뢰하여 안정적으로 치료를 받았지만 그때의 상황을 생각하면 아찔하다고 전하였다.

이외에도 빈혈이나 장염, 피부질환, 감기 등 질병에 걸리거나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한 검사와 치료 등 미등록이주아동의 건강을 지키는데 우리 사회는 아직 ‘모르는 척 한다’라고 느껴진다. 은유작가의 ‘있지만 없는 아이들’이라는 책의 제목처럼 존재하지만 모르는 척 하고 있는 사회의 무관심 속에 미등록 이주 아동·청소년들은 한국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성장해가고 있다. 물론, 보건복지부 ‘외국인 근로자 등 의료지원 사업’이나 민간기관들의 의료지원이 있지만 이러한 자원들은 일하는 부모의 자녀임을 증명해야하거나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많은 서류들이 필요하기에 위중한 상태가 아니라면 지원신청으로까지 이어지기 어렵기도 하다.

녹색병원 의료지원



녹색병원은 2021년 4월부터 금융산업공익재단의 후원으로 복잡한 자격요건이 아닌 '마땅히 보호 받아야 하는 아동의 측면'에서 아동의 건강권을 보호하고자 '미등록이주 아동의료지원사업'을 시행하게 되었다. 금융산업공익재단과 녹색병원이 각각 80%, 20%의 의료비를 지원하였고, 다양한 지역의 1차, 2차 협력 의료기관에서도 지원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의료접근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아동이 의료가 필요한 적기에 의료기관을 이용하고 지속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2022년 1월부터는 사업의 필요에 공감한 서울시교육청의 참여와 지원으로 '미등록이주학생의료지원사업'을 시작했으며, 서울시 내의 유·초·중·고등학교를 다니는 미등록이주아동들에 대한 의료비를 녹색병원과 50%씩 지원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사업을 시작한 2021년도부터 2022년 9월까지 270여 명의 미등록이주아동들에게 1,100여 건의 진료를 지원할 수 있었다.

미등록이주아동의 건강권 보장에 대한 의미

이러한 미등록이주아동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시도가 갖는 의미와 한계를 현장의 실무자 입장에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코로나19라는 전에 없는 감염병 유행의 상황에서 단 안 없이 작동을 멈춘 공공의료의 사각지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예방을 위해 능동적으로 대처하였으며, 이는 건강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혁신적인 가치를 제공하였다. 이를 통해 2022년 5월 13일, 김영주 국회의원과 공동주최로 미등록이주아동에 대한 인식개선 및 건강권 확대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둘째,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의료 서비스에 접근이 어려웠던 아동들에게 적기에 진료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적절한 건강 상담 및 관리를 받아 본 경험이 부족한 양육자들에게 진료 시 피부 위생 교육, 이상증상에 따른 주의관찰 교육 등을 통해 질병 관리 경험을 제공하고 1차적 건강·질병관리 능력 향상에 기여하였다.



1 안전망구축을 위한 금융산업공익재단 협약
2 안전망구축을 위한 서울시교육청 협약
3 미등록이주아동 건강권 토론회

셋째, 현재 미등록 아동에 대한 인구·사회적 통계는 전무하고, 건강과 관련된 자료도 거의 없는 상황이다. 예방접종, 감기, 위장질환, 피부질환 등 일상적인 질환이나 성장기에 겪을 수 있는 사고를 지원했던 자료는 미등록이주아동의 건강권에 필요한 의료현황 파악에 도움이 되는 사회적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의료 현장에서의 어려움과 앞으로의 실천적 과제

그러나 의지가 있다 할지라도 기관, 단체의 노력만으로는 한계점이 분명히 있다.

뜻을 같이하는 많은 협력의료기관이 있으나, 전담인력이 없는 1차 의료기관에서는 병원의 의료진이 아동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필요에 따른 지원을 하기 어렵다. 일부 아동에게는 한시적 체류 자격부여에 따라 건강보험에 가입이 가능해졌는데, 이에 대한 행정적 확인이 원활하게 되지 않아 한정된 자원을 필요한 대상에게 적절히 연계하는데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또한 지원 기관과 환자의 의료체계 및 절차에 대한 이해가 다르고, 환자와 의료진 간 증상 설명과 질병치료과정에 필수적인 의사소통에 있어 통역에 대한 어려움도 항상 존재한다.

이러한 어려움을 넘어 이들이 주체적으로 자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치료할 수 있도록 관련기관들과 더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미등록이주아동에 대한 지속적인 실태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이미 우리사회에 존재하고 있는 미등록이주아동들을 사회구성원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고 성장 가능성에 초점에 두는 관점 변화와 함께 출생등록 등의 행정적인 기반도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시흥시에서는 '출생확인증 작성 및 발급에 관한 조례안'을 만들기 위한 시도가 있었으나 인식부족 등의 한계에 부딪혀 안타깝게 부결되었으나 이러한 긍정적인 노력이 정부차원에서 계속 되어야 할 것이다.

난민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난민아동·청소년 지원방안

우리 사회 속의 난민

2018년 12월 추운 겨울, 부모님과 함께 본국 앙골라에서 박해를 피해 한국으로 피난 온 아이 4명이 인천공항에 갇혔습니다. 당시 아이들은 9살, 7살, 5살 등의 어린 나이였지만, 난민에 대한 한국의 차가운 시선은 이 아이들을 인천공항 제1터미널 46번 게이트에 287일동안 갇혀있도록 했습니다. 난민에 대한 냉담하고 편협한 사회 인식은 한국으로 보호를 요청한 이들을 '가짜 난민'이라고 낙인 찍었고, 본국으로 돌아가라며 인천공항에서 입국을 불허했습니다. 하지만, 이 가족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고 언론과 일부 시민들의 목소리, 변호사들의 도움으로 세상으로 소식이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씻지도 먹지도 못한 채 환승구역 바닥에서 쪽잠을 자는 안타까운 상황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난민들을 보호하라는 목소리와 난민들을 내쫓으라는 반대 의견이 서로 치열하게 부딪혔습니다. 언론을 통해 시민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고, 변호사들과 시민단체의 도움을 받아 2019년 10월, 마침내 287일만에 이 가정은 한국에 입국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 입국한 뒤에도 이 가정을 향해 돈벌러 온 '가짜 난민'이라는 부정적인 여론과 시선, 그리고 난민으로 인정되지 않는 상황은 변하지 않았지만, 이들은 돌아갈 수 없는 난민이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증명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2021년

오은정

사단법인 피난처 아동보호팀

2015년 요르단에서 처음 시리아 난민들을 만나게 되면서 난민들에게 좋은 친구가 되기위해 피난처에서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피난처 생활지원팀 간사로 일하면서 의료, 생계, 아동, 심리 지원을 맡았고, 2022년부터는 피난처 아동보호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용산구 내에 열국아이학교를 개소하여 난민아동들과 가정의 미래가 나아지는 것에 목표를 두고 일하고 있습니다.

5eunjeong.pn@gmail.com

10월 한국에 입국한지 2년만에 부모님과 아이들은 한국 정부로부터 난민으로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가정은 인천공항에 갇혔다가 가까스로 한국에 입국하고, 난민인정이라는 관문을 통과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오해와 난민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을 눈물로 견뎌야 했는지, 그리고 그 편견으로 인해 이들이 본국으로 송환되었다면 목숨을 잃을 뻔 했다는 사실을 상기해보면 사회적인 인식이 한 사람의 인생을 살릴 수도 있지만 죽일 수도 있다는 것을 실감하였습니다.



난민 아이들이 손잡고 걸어가는 모습

한국에서 처음으로 난민심사가 이루어진 1994년부터 2021년 12월까지 28년간 한국으로 보호를 요청한 난민 신청자는 73,384명인데 그 중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은 1,163명(2021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즉 1.5%에 불과합니다. 이는 아시아 최초 난민법 제정이라는 난민선진국의 위상과는 다르게 여전히 우리 사회가 난민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가장 잘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난민법이 제정된지도 10년이 지났지만 우리는 여전히 난민을 한국에 와서는 안 될 불청객으로 여기고 단지 '난민'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을 위험인물, 범죄자, 경제적 부담, 이질적 존재로 인식합니다. 실제로 한 여론조사¹에 의하면 아프가니스탄 난민 수용을 반대하는 이유로 난민범죄 피해에 대한 두려움이 34%, 다른 종교 및 문화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35%로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난민에 대한 두려움과 이질감이 우리 사회 속에 크게 자리잡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문화로 불리는 아이들

이러한 난민에 대한 우리 사회의 부정적 인식은 아이들의 학교생활에도 영향을 줍니다. 한달 전, 초등학교에 다니는 한 아이가 찾아왔습니다. 15년 전 아이의 부모님이 본국의 내전을 피해 한국으로 오게 되었고, 난민신청을 하였습니다. 이 아이는 한국에서 태어나 한국말을 모국어로 하고 태극기를 우리 나라 국기라고 그리는 아이입니다. 떡볶이를 제일 좋아하고 친구들과도 한국 예능, 한국 가요를 주제 삼아 떠드는 평범한 초등학교 4학년 아이입니다. 어느 날 아이가 학교에 가고 싶지 않다는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학교에서 '다문화'라고 불린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는 "선생님 다문화가 뭐예요?"라고 물었습니다. 이름이 있는데도 '다문화 학생'이라는 단어로 불리는 아이의 상황이 안타까웠습니다. 아이에게 상처주려는 의도가 아니라, 다문화 학생들에게 안내사항을 효율적으로 전달하려는 과정에서 다문화 학생들을 가리켜 지칭한 것이라고 이해되면서도, 각 아이들을 그 자체의 고유한 개인으로 바라보지 않고 '다문화'라는 한 특징으로 이 아이들을 묶고 한국인과 구분짓는 우리 사회의 낮은 다문화 감수성에 대해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1 [기획] 난민 수용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한국리서치 여론속의 여론 <https://hrcopinon.co.kr/archives/20000>)

난민에 대한 인식과 사회적 제도

난민을 꺼리고 두려워하는 사회의 분위기는 난민 심사를 더 편협하게 만들고 보호가 필요한 대상을 '가짜 난민'이라고 낙인찍습니다. 실제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난민신청 절차를 지속하다 체류기한이 만료되어 외국인 보호소에 보호된 한 남성은 보호소에서 극적으로 난민인정을 받았습니다. 난민인정자 대부분은 난민신청 절차를 반복하고 생활이 점점 어려워지는 현실을 견뎌내며 사실상 불필요했던 수 년의 시간을 허비한 뒤에야 난민인정이라는 지위를 얻습니다.

또한 난민들에 대한 사회보장이 매우 제한적입니다. 수년이 걸리는 난민신청절차 동안 난민신청자는 건강보험, 기초생계비, 교육비 지원 등 사회보장이 적용되지 않아 철저히 사막에서 홀로 사는 것과 같은 생활을 하게 됩니다. 아이가 고열에 시달려도 병원에 가야 할 지 주저하는 부모의 모습을 지켜볼 수 밖에 없습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비싼 병원비를 감당할 능력이 없어 밤새 애타우다 다음날 아침 병원에 갔더니 아이가 폐렴이라는 안타까운 소식을 듣기도 합니다.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고 싶지만 평균 40-50만 원을 오가는 교육비를 낼 수 없어, 일을 하지 못하고 매일 끼니를 걱정하는 미혼모 가정도 많습니다.

게다가 이들이 사회에 정착이 되지 못하고 계토화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난민들을 수용하려는 사회적 분위기는 난민들에게 한국어를 더 배우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스스로 일을 하면서 자립하도록 기반을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반대로 난민을 배제하고 혐오하는 사회적 시선은, 이들로 더욱 사회와 단절하도록 만들고 불안정한 상황으로 인해 현지 문화나 언어를 배척하게 하고 본국 문화와 공동체 안에서만 머물려고 하는 계토화를 부추깁니다. 이러한 모습은 또 다시 우리 사회가 난민들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악순환을 만듭니다.

난민과 아동·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난민을 향한 시민사회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피난처는 2022년 3월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아이들을 위한 센터 '열국아이학교'를 개소하였습니다. 난민 및 이주배경 아이들은 방과 후에 센터로 와서 인성교육, 미술, 체육, 음악, 그리고 한국어를 공부합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번 보건교육과 야외활동에 참여합니다. 아이들이 선생님과 배우고 놀고 소통하는 법을 배우며 한국사회에 긍정적인 경험을 쌓아갑니다. 이러한 긍정적 경험은 아이들이 신체적, 정서적, 지적으로 건강하게 자라갈 뿐만 아니라 사회에 도움이 되는 구성원이 되겠다는 동기를 일으킵니다. 또한 오전에는 어머니들을 위한 한국어 수업과 부모교육, 베이킹이나 원예 수업 등을 운영하여 궁극적으로 가정이 자립하는 것에 목표를 둡니다. 사회와 긍정적으로 소통하며 자립 기반을 만들어가는 부모를 통해 난민 아이들이 가정에서 올바르게 양육받고 나아가 사회에서 난민가정들이 잘 정착하는 좋은 모델을 만드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난민인식개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이 난민아동 교육 자원봉사자, 난민사업에 협력하는 기관, 학교, 교회 등 시민사회가 난민 아이들과 그 부모들을 만나면서 난민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특히, 봉사자들과 협력기관들이 자원봉사에 참여하기 전에 피난처의 '난민학교'라는 세계시민교육을 통해 난민에 대한 이해와 새로운 관점을 배우고, 스스로 어떤 부분을 난민들과 함께할 수 있을지 고민하며 난민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실천해 나가게 되는 인식의 변화가 있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참여 대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 외에도, 올해부터 용산구 내 이주아동네트워크 모임이 시작되었는데, 학교 선생님, 교육복지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다양한 민간단체 등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매월 정기회의를 통해 모임고 사각지대에 있는 이주배경 아이들의 사례를 공유하기도하고 서로 협력하고, 무슬림, 난민, 교육 등의 여러가지 주제로 워크숍을 하기도 합니다. 이주배경 아이들을 만나는 실무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아이들에 대한 이해를 도울 뿐 아니라 실질적인 지원방안과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활동을 함께

논의하고 있습니다. 지역 내 다양한 실무자들의 연대를 통해서 이주 아동에 대한 인식이 개선될 뿐 아니라, 아동들을 위한 지자체 사업이 활발해지고 지원 정책 또한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지역 내 네트워크는 중요합니다.

난민 아동·청소년에 대한 인식개선 지원방안

난민 아동·청소년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교육기관 그리고 시민사회 등 다양한 기관들이 함께 협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최근 여론조사²⁾에서 난민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응답의 이유로 난민들로 인해 범죄가 증가할 수 있다는 의견과 다양한 문화로 인해 사회적 갈등이 초래될 것이라는 의견이 가장 많이 나타났습니다. 난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바로잡기 위해 정부는 우리 사회가 난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저출산, 고령화와 더불어 다문화 사회로 빠르게 가고있는 대한민국이 외국인에 대한 두려움과 이질감으로 혼란스러운 사회가 되도록 더 이상 방관할 수 없습니다. 이주배경 아이들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것을 인지하고 정부는 난민과 이주 정책을 개정해야 합니다. 난민인정절차를 심사할 인력과 재정을 늘리고 제대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며, 그 과정에 있는 사람들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사회보장 제도를 정비해야 합니다. 난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사회보장 제도가 그들에게 포용적이기 보다는 제한적으로 적용되도록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 난민 아동의 부모들이 가장 많이 호소하는 어려움이 미취학 자녀들의 교육비 문제입니다. 최근 에티오피아 출신의 한 난민여성이 저희 기관에 올면서 찾아왔습니다. 자신과 남편이 난민신청자였기 때문에 제대로 일을 구할 수 없었고 생계에 허덕이는 상황에서 아무런 지원 없이 어린 아이를 키우기가 벅했던 남편은 얼마 전 자신과 아이를 두고 한국을 떠났다는 것이었습니다. 혼자가 된 이 여성은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야 일을 하고 생활을 유지할 텐데 교육비는 한 달에 40-50만 원이 넘고 그나마 저렴한 국공립 유치원은 자리가 없어 받아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처럼 정부로부터 교육비 지원이 없어 자부담으로 유치원에 가야하는 0~4세

난민인정신청 아동은 2021년 기준 1,376명(난민인정자 제외) 입니다. 이는 18세 미만의 전체 난민인정신청 아동 2,939명의 46.8%(2021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를 차지하는 숫자입니다. 전체 난민아동의 절반이나 되는 아이들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보육기관을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면, 아이들에게 최소한의 의식주를 제공할 경제적 자립이 이루어지기 어렵고, 이는 아동방임이나 영양부족,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외부환경에 가장 취약한 시기의 미취학 난민아동이 안전하게 보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보육비를 지원해야 합니다. 또한 청소년이 학교를 이탈하지 않도록 학교시스템을 정비하며, 나아가 이주배경 청소년이 안정적으로 취업 및 학업을 이어가며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매년 초가 되면 가장 많은 도움 요청을 받는 것이 있는데 초등학교 입학에 대한 문의입니다. 입학통지서를 받지 못하는 난민 아이들은 쉽게 초등학교 입학 시기를 놓치고 맙니다. 학교 입학에 필요한 서류들을 본국에서 미처 챙기지 못하고 급하게 피난 오는 난민아이들은 여권 하나만 가지고 학교를 방문합니다. 그리고 말도 통하지 않는 입학 담당 선생님에게 왜 아이에 대한 서류가 아무것도 없는지, 왜 입학통지서가 없는지, 아이가 몇 학년까지 학교에 다녔는지 등을 한참 설명합니다. 그 과정에서 입학이 지연되기도 하고, 학교에서는 입학을 난감해하기도 합니다. 최근 아프가니스탄에서 입국한 특별허가자 지위의 난민 아이들의 입학이 지연된 사건은 그동안 난민 아이들이 학교입학 과정에서 겪어왔던 일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출신, 국적, 체류지위와 상관없이, 차별받지 않고 마땅히 누려야 할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해 줄 수 있도록 입학통지서를 발부하고, 입학과정을 신속하게 지원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부모가 주체가 되어 가정 안에서 아이를 안전하고 건강하게 양육할 수 있도록 돌봄지원과 자립지원 정책을 통합적으로 고민해야 합니다.

두번째로 교육기관에서는 초기교육부터 연령에 맞는 다채롭고 다각적인 다문화 감수성교육이 필요합니다. 특히 아이들과 더불어 교사와 실무자들에게 이주배경에 대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다문화 교육이 활발해지면 아이들과 교사들이 세계시민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다문화 역량을 키울 뿐 아니라 어떤 학생이든지 학급에서 차별받지 않고 수용받을 수 있는 학급문화를 형성하고, 체계적이고 연속적이며 실질적인 다문화 감수성 교육방식을 개발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는 링크

- ① 사단법인 피난처 홈페이지
www.pnan.or
- ② 난민인권센터 '국내난민현황 통계'
<https://nancen.org/2256?category=118980>
- ③ 시사인 '공항 살이 287일, 마침내 '난민' 인정받은 루렌도 가족'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5760>

더불어 체계적인 학교 적응 프로그램을 통해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이 학급에 새로 오는 경우 자신 혹은 부모의 언어 및 문화를 친구들에게 소개하고 같은 반 학생들과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준비기간을 갖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특히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이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과 부모 국가의 정체성 사이에서 혼란스러워 하는 시기에, 아이가 양쪽 문화를 얼마나 이해하고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는지가 정체성을 찾아가는데 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이주배경 아이들이 학교에서 상호 간의 문화를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와 부모가 학교를 통해 한국어와 문화를 배우고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도 좋은 방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시민사회는 난민 아동·청소년에 대해 올바른 견해를 갖기 위해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관련 민간단체에서는 연령, 성별, 관심사에 맞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난민에 대해 인식을 개선해 나가야 하고, 시민들은 온라인에 퍼져있는 가짜뉴스나 혐오를 조장하는 기사에 생각을 맡기거나, 아무런 고민없이 난민들을 무조건적으로 옹호하거나 불쌍하게 바라보는 시선보다는, 열려있는 기회를 통해 직접 만나고 소통하며 난민에 대한 자신만의 시선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시선은 '난민'이라는 프레임 이전에 나와 같은 '사람'이라는 생각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시민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그리고 우리 나라의 국민으로서, 글로벌 사회 시민으로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서로가 안전하고 평화로운 사회가 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합니다.

② [기획]미얀마와 아프간 난민에 대한 한국 사람들의 인식 분석(한국리서치 여론 속의 여론 <https://hrcopinon.co.kr/archives/19628>)

제3국 출생 탈북배경청소년의 교육 지원을 위한 현장 교사의 제언

한국 속 제3국 출생 탈북배경청소년들의 삶

사례1 17살 북한 출생 봄향이에게는 엄마가 중국인 새아버지와와의 사이에서 낳은 9살 어린 여동생이 있다. 한국에서는 세 모녀만 살고 있고, 엄마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느라 집을 자주 비우신다. 자연스럽게 봄향이가 어린 동생을 돌보는 시간이 많다. 가끔 봄향이는 할수 없이 어린 동생을 데리고 학원에서 수업을 듣기도 한다.

사례2 올해 25살인 수련이는 탈북 후 18세에 중국에서 결혼을 하여 아들을 낳았다. 아들과 둘이서만 한국에 들어와서 독학으로 중, 고 검정고시를 합격하는 등 열심히, 씩씩하게 살고 있다. 하지만, 수련이는 한국의 학교를 다녀 본 경험이 없어서 아들이 크게 될수록 어떻게 학교생활을 도와주어야 할지 고민이 많다.

사례3 리향이는 중국 출생으로 17살에 하나원 하나돌학교에 들어와서 북한 출생들과 함께 교육을 받았다. 북한 출생들에 비해 기본 학력 수준이 확실히 높았다. 하지만, 3년 후 북한 출생 하나원 동기들은 서울의 4년제 명문대학에 입학하였지만 리향이는 가정 형편상 수도권의 전문대학에 입학하였다.

진) 하나원 하나돌학교 파견교사(2017년 ~ 2020년 2월),
현) 한국교육개발원 탈북청소년 찾아가는 진로상담단,
성장멘토링, 탈북학생교육우수사례 교육부장관상(2020),
남북하나재단 북한이탈주민특별전형입시자료집 제작, 석사논문
“제3국출생북한이탈주민자녀에 대한 북한이탈주민들의 인식 연구”
cristian77@naver.com

사례4 명호는 중국 출생으로 14살에 하나원 하나돌학교에서 교육을 받은 후 탈북청소년 대안학교로 진학하였다. 하나돌학교 선생님들은 명호가 비교적 어린 나이였기에, 초반에 한국어를 몰라 힘들더라도 일반 학교에서 2~3년간 노력하면 충분히 학업을 따라갈 수 있을거라며 일반 학교를 추천하였다. 하지만, 명호의 한국어에 대한 걱정과 생계로 바빠 명호를 케어할 자신이 없던 어머니는 결국 기숙사가 있는 탈북청소년 대안학교로 보냈다. 만2년이 지난 후 명호는 여름 방학때 하나원 심화 보충 프로그램으로 다시 하나원에서 교육을 받으러 들어왔고 2년만에 영어 선생님과 재회하였다. 영어 선생님은 명호의 생활 한국어가 약간 늘었을 뿐, 2년 전처럼 여전히 한국어로 수업을 들을 수 없음을 파악하였다. 그래서, 명호에게는 2년 전처럼 중국어로 설명되어 있는 영어 교재를 주었고, 설명할 때는 번역기를 써야만 했다.

사례5 중국 출생 은주는 14살때 탈북민 어머니와 함께 한국에 왔다. 한국어를 전혀 몰랐지만 어머니는 은주를 집 근처의 초등학교에 2살을 낮춰 전입을 시켰다. 첫 2년간은 한국어 때문에 고생이 많았지만 한국 친구들을 사귀고 지속적으로 한국말을 쓰면서

고1인 지금은 한국어로 수업을 듣는 데에 문제가 없다. 은주는 학급에서 현재 부반장을 맡고 있을 정도로 학교 생활도 적극적으로 잘하고 있다. 다만, 본인도 어머니도 한국의 대학 상황과 진학 준비 방법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서 답답해하고 있다.

지원 현황 및 문제점

북한출생과 같은 듯 다른 지원

현재 교육부는 각 시도 교육청과 한국교육개발원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를 통하여, 통일부는 정착지원과와 하나원 그리고 남북하나재단, 여성가족부는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을 통하여 탈북배경청소년들에 대한 교육, 심리 상담, 가족 지원 등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 기관의 지원 사업 대부분은 북한 출생과 제3국 출생 모두를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대학교 과정부터의 지원에서는 이 두 집단 사이에 큰 차이가 있다.

북한 출생들은 대입에서 북한이탈주민특별전형의 대상자가 되어 비교적 쉽게 명문대학들에도 입학하지만 제3국 출생들은 해당 대상이 아니다. 최근 서강대, 강원대 등 10여 개의 대학에서 사회적배려대상자전형의 한 자격 조건으로 제3국 출생들을 포함하고 있으나 정원내 전형이며 일반 한국 학생들과 경쟁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북한출생들이 받는 배려와는 수준 차이가 크다. 또한, 북한 출생들은 입학금은 물론 국공립 대학의 등록금 100%, 사립대 등록금의 50%(나머지 50%도 대부분 대학 자체 장학금 지급)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반면 제3국 출생들은 지원 대상이 아니다. 남북하나재단이 지원기금을 바탕으로 제3국 출생들의 대학 입학금을 지원하기도 하지만 확실히 제도화된 것은 아니다.

❶ 2016년 기준 제3국 출생 탈북청소년들의 한부모 가정 비율은 45.2% 였다. (남북하나재단, 『2016 탈북청소년실태조사』)

❷ 보호자 없이 집에 있는 빈도가 거주 기간 3년 미만 탈북청소년들은 “거의 매일”이 27.7% 였음 (남북하나재단, 『2020 탈북청소년실태조사』)

❸ 남한에서의 정규교육에 대해 74.4%가 ‘무학(안 받았음)’에 응답하였음. (남북하나재단, 『2015 북한이탈주민사회조사 I』)

불안정한 가정 배경

제3국 출생들은 그 출생 배경 상의 문제로 인해 많은 학생이 한부모 가정에서 살고 있으며^❶ 어머니들의 나이가 비교적 어린 편이고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가정을 비우는 경우도 많다.^❷ 또한, 대부분의 학부모들이 한국의 교육과정을 경험하지 않아 한국 교육 상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❸

탈북청소년 대안학교가 답?

제3국 출생들이 한국 사회 적응에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을 갖는 부분이 바로 언어이다. 초등학교 이후 시기에 입국한 학생들은 한국어 학습에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어 많은 학생들이 한겨레중고등학교와 탈북청소년 대안학교에 재학 중이다. 물론, 이들 학교에서 한국어 집중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나 현재 학교마다 제3국 출생들이 70%가 넘는 상황에서 한국어 수업 외 시간에는 자신들끼리 중국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결과적으로 일반 학교에서 일반 학생들과 지내며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들보다 한국어 적응도가 떨어지는 결과로 많이 이어진다. 이는 다시 학업과 한국 생활 적응의 문제로 이어 질 수 있다.

제3국 출생 탈북배경청소년 교육 지원을 위한 제언

대학교육 지원 대상 및 수준 조정

사회 변화 속도가 빨라지고 요구되는 직업 역량 수준이 높아지고 있는 한국에서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위해서는 전문대학 수준 이상의 교육이 필요한 것이 현실이다. 앞으로 북한출생들의 숫자가 지속적으로 줄어들 것을 감안하면 이들을 위해 쓰였던 대학 교육 지원 예산을 제3국 출생들에게도 일정 부분 편성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또한, 현재 약 10여개의 대학들이 제3국 출생들을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에서 일반 학생들과 함께 선발하고 있는 것을 제3국 출생들만의 정원의 전형으로 변경하고 그 시행대학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 또한 현실적이다. 물론, 대학별로 일정 수준의 한국어 능력과 수학능력에 대한 최소 기준이 필요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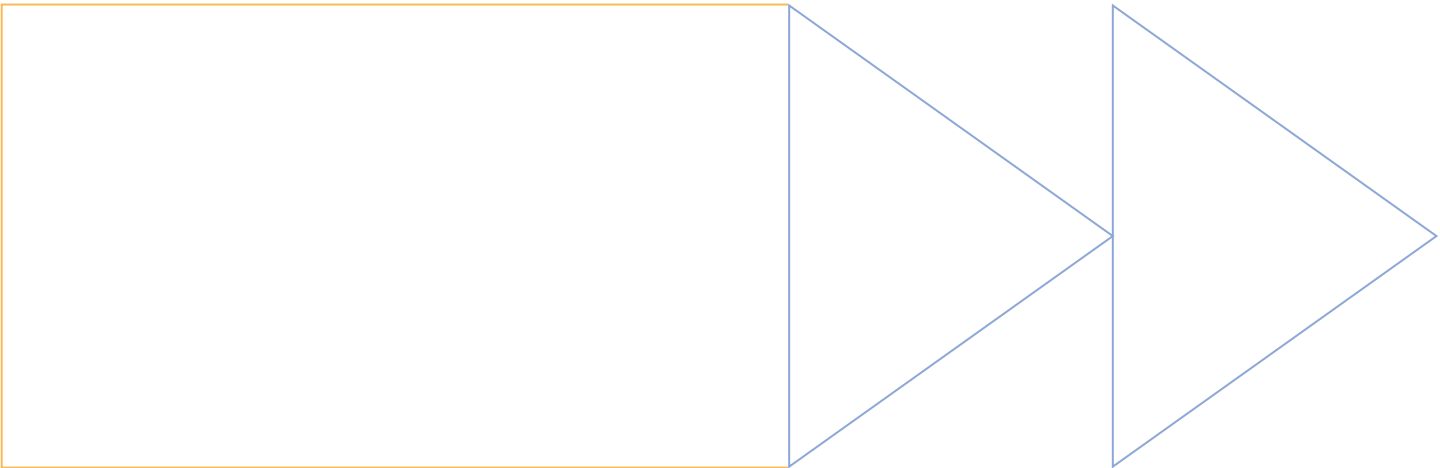
교육청 내 전담 진로상담교사 배치

여러 가지 이유로 대안교육 체제에서 교육 지원을 받아야 하는 제3국 출생들이 분명 있지만, 가능한 한 일반교육 체제 내에서 제3국 출생들을 지원하는 것이 기존의 다문화 교육의 지원체계를 활용할 수도 있으며, 장기적으로 한국 사회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 본 집필자는 교육청 내에 탈북배경청소년들의 교육지원을 위한 진로상담교사를 배치할 것을 제안한다. 현재 남북하나재단은 전국 26개의 학교에 북한교사 출신 통일전담교육사 22명을 배치하여 탈북배경청소년들의 교육을 지원하고 있지만 숫자적으로 부족하고, 이들 대부분이 한국에서 초,중,고 과정을 거치지 않아 중학교 이상의 진로지도가 어려운 상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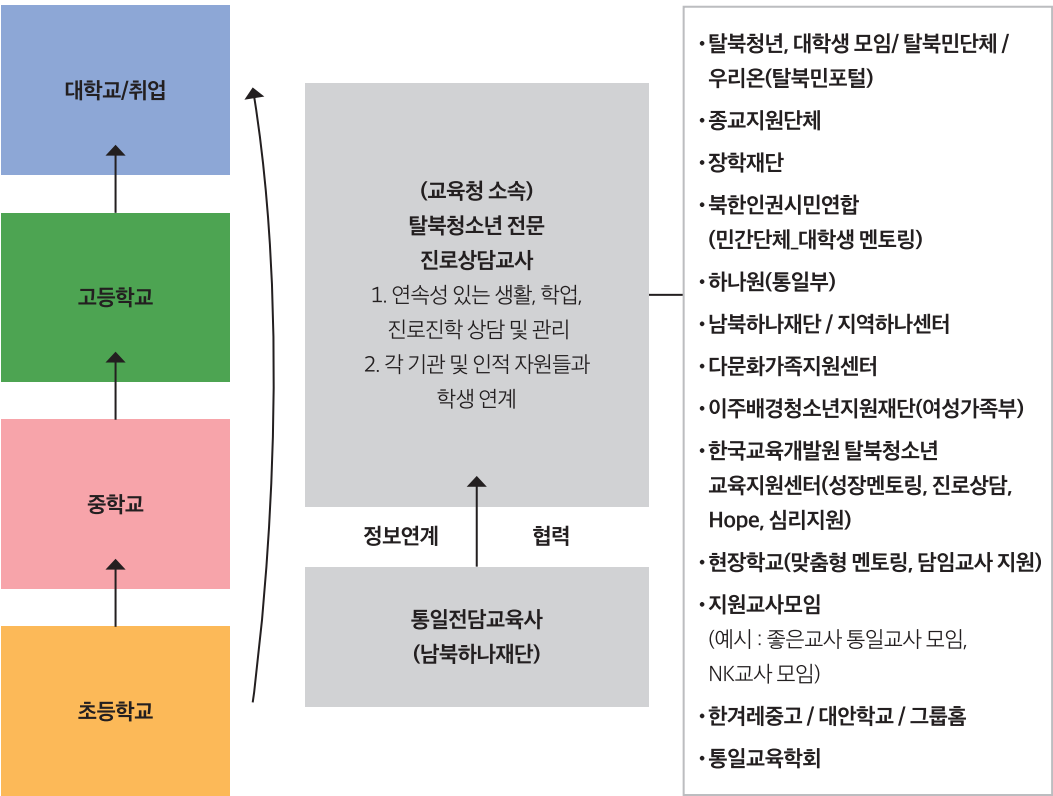
교육청 내 탈북배경청소년 전담 진로상담교사는 일반 중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탈북배경청소년들에 대한,

- 첫째, 학교생활, 학업, 진로, 진학 등에 대한 맞춤형 상담
- 둘째, 맞춤형 학부모 교육 및 상담
- 셋째, 각 유관 기관과 장학 재단 및 인적자원들과의 연계
- 넷째, 탈북배경청소년 담임교사 및 재학 학교에 대한 자문

의 역할을 담당한다. 아무리 좋은 지원 프로그램을 외부 기관이 구상하고 운영하더라도 현장 교사들을 통해 소개와 투입이 되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다. 자주 보직이 바뀌는 교육청내 전문직과 행정직원들 대신에 탈북배경청소년들 관련 교육 지원 경험 및 노하우와 네트워크를 확보하고 있는 교사가 상당 기간 전담 진로상담교사의 역할을 맡는다면 교육부, 통일부, 여성가족부, 교육청의 사업들을 대상 학생들에게 연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아질 것이다. 또한, 전담교사의 숫자에 따라서 탈북배경청소년들에 대한 교육 지원의 질을 균등하게 할 수 있는 이점도 있다. 일부 교육청이 하나원 파견교사로 매년 3명 이상의 교사를 지원해주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이를 시행하는 것이 결코 어렵지 않을 것이다.



교육청 소속 탈북청소년 전문 진로상담교사 모델 구상도



발간번호

MYF22-18-개

펴낸곳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

발행일

2022년 11월 17일

발행인

차윤경

편집인

김윤영

편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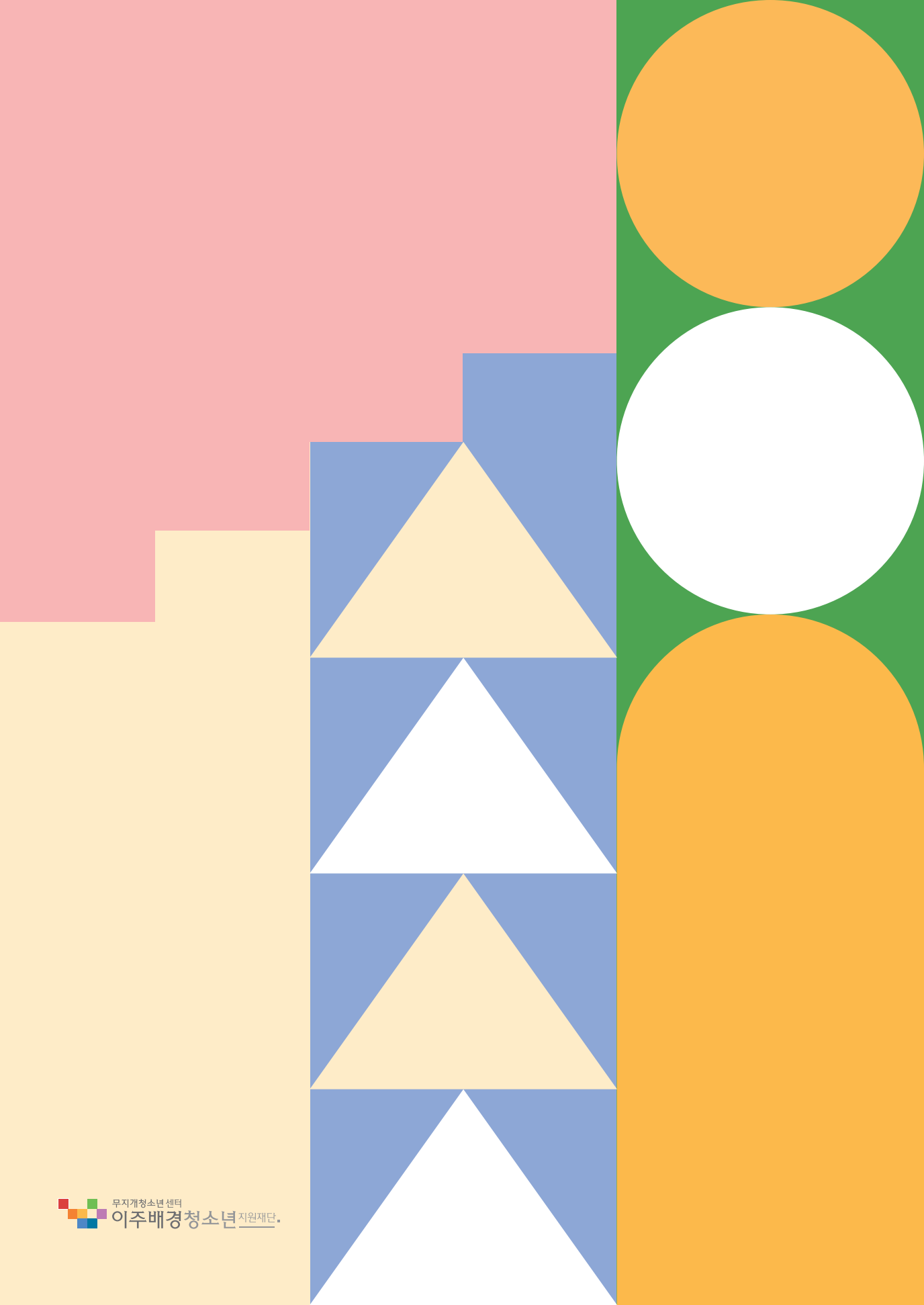
이지은, 최병현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 24길 20, 이음빌딩 2층
Tel. 02-733-7587 / Fax. 02-733-7586
<http://www.rainbowyouth.or.kr>

디자인 및 인쇄

더디앤씨(thednc)



무지개청소년센터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